

사순절 설교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마태복음 27:27~31>

최 종 복 목사 (치쿠마 비전 전도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세 가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추악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 중에서 출생하여 죄를 범행듯이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날밤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신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령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 분은 분리 되신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잠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시편 22편 1,2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음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을 하고, 원수처럼 돌아서는 일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쉼병에 걸렸다가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신들렸다 온전해진 사람들입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배가 고프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 그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 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 하였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그를 믿고 사랑하였기에 그에게 회계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밤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중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래로는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적, 심적 고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겔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야바의 뜰에 끌려 가서서 밤새도록 심문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며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집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은 통통 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얼굴과 몸이 침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당하신 모욕과 고통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이 새도록 심문과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또다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문을 당하신 후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으신 후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너무도 괴로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 세상의 형벌로서는 가장 모진 고통이라고 합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고 공중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육신이 처집니다. 그러면 손과 발에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줍니다. 그러면 육신이 탈진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억지로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내교우편지

제직세미나 개최

관동지방 각 교회에서 150명 모여

2018년 2월 11일 오후 4시,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관동지방회 제직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관동지방회와 자매관계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서 강사로 대구평산교회의 이홍식목사님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관동지방회 산하 각 교회에서 약 150여 명이 모인 세미나에서 이홍식목사의 유쾌하고 유머스러우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강의 해주셨다.
(보고 : 장경태목사)



청년교우편지

청년을 위한 연수회 개최

주제 :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2018년 2월 11일(주일)~12일(월·휴일)에 청년회 전국 협의회 주최 「제 18회 청년을 위한 연수회」가神戸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청년 참가자는 49명이었으며, 올해는 일본기독교교회의 청년과, 서부지방·서남지방 청년도 많이 참가했다.

첫째 날에는 개회예배로 시작 되었으며 武庫川교회 양영우목사의 설교, 전협대표 오진아 자매의 주제 건해 「주제 :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부제 : 사회 속에서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가자 전원이 귀를 기울였다. 그 후 여섯 분단으로 나누어, 개개인이 안고 있는 고민과 신앙관, 사회 속에 있는 제일 코리안의 존재·크리스찬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밤 기도시간에는 京都南部교회 김도원집사가 찬양을 리더하는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

둘째 날에는 2인 1 조가 되어 서로를 위한 아침기도로 시작되어, 일본기독교교단 神戸愛生전도소·北須磨교회의 竹内富久恵목사를 초청한 주제강연이 있었다. 1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주제 견해에 따른 다양한 테마를 혼합한 강연이었으며, 그 후 분단 워크에서는 강연 내용에 관한 청년들의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점심식사 후에는 참가자 한 명 한 명이 연수회의 감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예배에는 堺교회 石橋真理恵전도사의 설교로 1박 2일의 연수회를 마무리하였다.

사회에는 저출산이, 교회안에서는 청년들의 교회이탈을 걱정하고 있는 지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인 한 명 한 명의 귀한 만남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여겨 갈 것을 깊이 새기는 연수회였다.
(보고:이지희)



청년회지판

제2회 중앙위원회 열어

관서개교회 방문도 실시하여 교류

지난 2018년 1월 27일~28일에 걸쳐 청년회 전국협의회(전협)의 제2회 중앙위원회가 오사카 KCC회관에서 열렸다.

2월 11일~12일, 코베 교회에서 가지는 <청년을 위한 연수회>, 청년주일에 전국교회에서 드러지는 <청년 기도문>, <하기 수양회>에 대하여 의논하고 장소 결정 등을 하였다.

회의 후에는 오가카교회 오광현집사를 초청하여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내용은, <광주 민주화 투쟁>, <지문 압날 문제>, <한일합의>, <재특회> 등이었다.

28일 주일에는 지역교회에 나누어서 방문하였다. 京都교회, 神戸東部교회, 京都南部교회, 武庫川교회, 大阪第一교회, 川西교회 등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청년회를 알리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모여 방문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 방문을 기회로 청년회 활동에 참가자를 늘리는 등 수확이 큰 방문이었다.

제3회 중앙위원회는 4월에 서남지방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보고 : 양정우)



전국여성회

성경 세미나 개최

『벽을 없애자』 주제로 의견교환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이하 전국여성회)·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이하 서부여성회) 공동주최로 제19회 성경세미나가 2018년 2월 6일(화)~7일(수) 고베 하버랜드온천 「만요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를 「벽을 없애자」, 부제를 「당신의 벽은?」 강사로는 김필순 목사(사카이교회)를 맞이하여 2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최춘자목사의 “요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이루어졌다. 강의 내용은 구약 성경 뜻을 가지고, 강의 중에 8그룹으로 나누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그룹에서 “우리에게 벽은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 하는가?” 등 테마에 따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저녁식사 후 이현지회장 사회로 친목회를 가져 전국여성회 활동 보고, 나드 향아리 헌금을 하며, 서부여성회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

2일째 아침은 각 지방회의 기도제목에 따라 기도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전원이 한마음이 되어 각 지방회 문제를 알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폐회예배에는 이시바시마리에전도사 (전국여성회총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이루어졌다. 올해의 성경세미나도 많은 참가자 (72 명)가 함께 모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세미나를 마쳤다.

(보고 : 유정혜)



서부지방교회

청년의 신년회 개최

4교회에서 26명이 참가해서 교류

2018년 1월 6일 (토)에 서부지방교회 평신도부 주최로 “청년의 신년회”를 고베 기타노가든에서 열었다. 4교회 26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이번에는 특히 젊은 부부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집사·권사들에게 베이비 시터를 부탁했다. 당초 예정했던 한국연주자가 엑시던트(우연한 사고)로 일본방문이 취소되어 대신 핀치히터(대타)로 차현숙집사(고베동부교회)의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이 있었다.

그 다음 맛있는 프렌치 풀코스도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청년들과 아기 돌보기 등으로 바빴던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세련된 장소

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요리도 맛보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도 들을 수 있어서 은혜 넘치는 신년회였다.

(보고:최 미혜자)



NEAAC총회, 홍콩에서 열려

김건 부총회장과 허백기목사가 참석



지난 1월22일~24일, 홍콩의 중화기독교회 홍콩구회(HKCCCC)본부에서 NEAAC(세계개혁교회공동체 동북아시아부회) 총회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일본그리스도교회 후지모리장

로를 비롯한 3명의 총대,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김건 부총회장과 허백기 목사가 참석했다. 회의에는 한국에서 기장(PROK), 예장통합(PCK), 대만에서는 대만장로교회(PCT), 그리고 호스트인

HKCCCC에서 각각 파송된 총대가 모였다. 세계개혁교회공동체(WCRC)본부에서는 크리스 퍼거슨 총무가, 그리고 WCRC중앙위원이자 NCCK총무인 이홍정 목사가 참여했다.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제이슨 램 박사에 의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동북아시아의 맥락에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전체토론에서는 흥미로운 토픽들에 대해서 각 교단 대표들의 의견이 교환되었다. 하나는 교회에서의 성직소수자 용입과 젠더(사회적 성)의 문제였으며 또 하나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자살자의 문제였다. 어느 쪽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으나 각 교단이 놓여진 상황에서 신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면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다.

차기 NEAAC 의장으로는 PCT의 조슈아 리안(連振翔) 목사, 서기로는 PCT의 엔슈안 류(盧恩萱) 자매가 선출되었다. 약관 31세인 청년목사와 25세의 청년신도이다. 이번 총회에는 각 교단의 청년총대들의 파송이 눈에 띄었다. 새로운 세대의 대두가 기대된다.

(보고: 허백기)

외기협 제32회 전국협의회·전국집회를 삿바로에서 개최

4월에 日·韓·在日교회 <이주민>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기로

외기협은 2월1일~2일, 제32회 전국협의회를 홋카이도 크리스천 센터에서 개최하여 한국NCC를 비롯하여 각 교단·단체 및 각 지역 외기련 대표자와 지역 참가자를 포함하여 52명이 참석하였으면 그 중에 KCCJ에서 6 명이 참가했다.

협의회 목적은 ①지문 거부에서 시작한 외기협 운동 32년간의 도달점을 확인하고 홋카이도 외기련의 활동을 배우면서 <일본의 역사 책임> 및 <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협의. ②헤이트 스피치를 비롯한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계의 일치한 의견과 뜻을 표명하고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실질화와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협의. ③2·8 독립선언/3·1 독립운동 99주년, 日·韓·在日교회의 공동과제를 생각하고, ④지금까지의 공동의 노력에서 새로운 선교 플랫폼(platform)을 생각하는 11개의 발제를 기반으로 토의하였다.

또한 성서연구로서는 渡辺輝夫목사(日本キリスト教会)가 <복음을 함께 참여하여>라는 주제로, 홋카이도 과소(過疎) 지역에서의 목회경험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것은 감동적이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전체회의로, 2018년 활동계획을 의논하고,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각 자치 기관에 요청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과, 4월에 한국NCC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와의 공동 주최의 제18회 日·韓·在日교회 <이주민>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확인 했다.

눈이 오는 2월2일 저녁, 일본성공회 삿바로교회에서 <제32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을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자 집회>를 가져, 지역 참가자를 합하여 132명이 모였다.

1부 예배에는 植松誠사제(일본성공회 수석 주교, 홋카이도 교구 주교)가 <북쪽 대지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2부 에는 殿平善彦(浄土真宗本願寺派一乗寺住職)씨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강제노동 희생자 유골을 고국에, 아이누 유골을 고탄(コタン)에 보내는 일을 통하여>의 주제를 가지고 홋카이도에의 꾸준한 노력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마지막에는 집회 선언문을 확인하고 참가자들은 전국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 갔다.

(보고:RAIK)



제32회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그리스도인 집회선언문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합협의회’(외기협)은, 2018년2월1~2일 삿포로시 핫카이도크리스천센터에서 ‘제32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이누 모시리 (인간의 고요한 대지)로부터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천막을 넓히자”라는 주제로 각 지역 외기연 및 외기협, 가맹 각 교파·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등 대표자 51명이 참석해, 공생사회 실현 과제와 차후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핫카이도 아이누를 비롯한 소수자 차별의 역사와 저항, 근래에 급증하는 외국인기능실습생의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국인 주민차별현황과 ‘다민족/다문화’ 화에 대한 카톨릭교회 대처현황, 외국인 주민시책 지자체 교섭현황, 증오선동발언(Hate-Speech) 및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선결과제, 삿포로시 인종차별철폐 조례 작성운동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할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의 사명을 성경말씀을 통해 되새기고, 일본/한국/제일 각 교회의 공동과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2017년 4월에 설립한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의 사역보고도 있었습니다.

일본사회는 선주민(先住民)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없이는 지역사회의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뿌리깊게 존재합니다.

선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롯한 소수자 차별은, 생명존엄을 부정하며 힘으로 지배해 온 역사와 결부됩니다. 이같은 차별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식민지주의 역사를 시인하고,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을 맞으며 “핫카이도 150년”, “메이지150년”을 내세워, 과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존엄과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2020년을 맞아 ‘인권대국 일본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의 의무조항시행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치명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한 인간으로 존중되며, 각자의 문화를 나눌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만, 인권이 보장되는 다문화 공생사회가 실현가능합니다.

이념법에 불과한 ‘증오선동발언(Hate-Speech) 해소법’을 실효성있는 것으로 만들고, 차별금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종차별철폐조례제정, 다민족/다문화 공생도시 선언 등을 촉구해야만 합니다. 이와같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외국인 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실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세계 그리스도교회와의 협동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사명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사회속의 소수자 음성에 귀기울이고 동행하며 차별에 저항하는 세계적 에큐메니컬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본성공회 삿포로그리스도교회에서 ‘제32회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그리스도인 집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차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이, 세계의 분단을 넘어 미래를 향한 진정한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복음선교 사명을 인식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을 결의합니다.

2018년 2월 2일

제32회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기독교연합협의회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오사카 제일 민박 OSAKA STAY

대표 정홍권 장로/안희자 권사(오사카교회)

大阪市生野区中川西3-9-6(大阪教会近く)

Tel 06-6777-7033 / 携帯090-8538-4433

Kakao ID : ntip0033

Email:osakastay@dune.ocn.ne.jp

http://www.osaka-stay.net

大阪市指令許可書11549号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 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